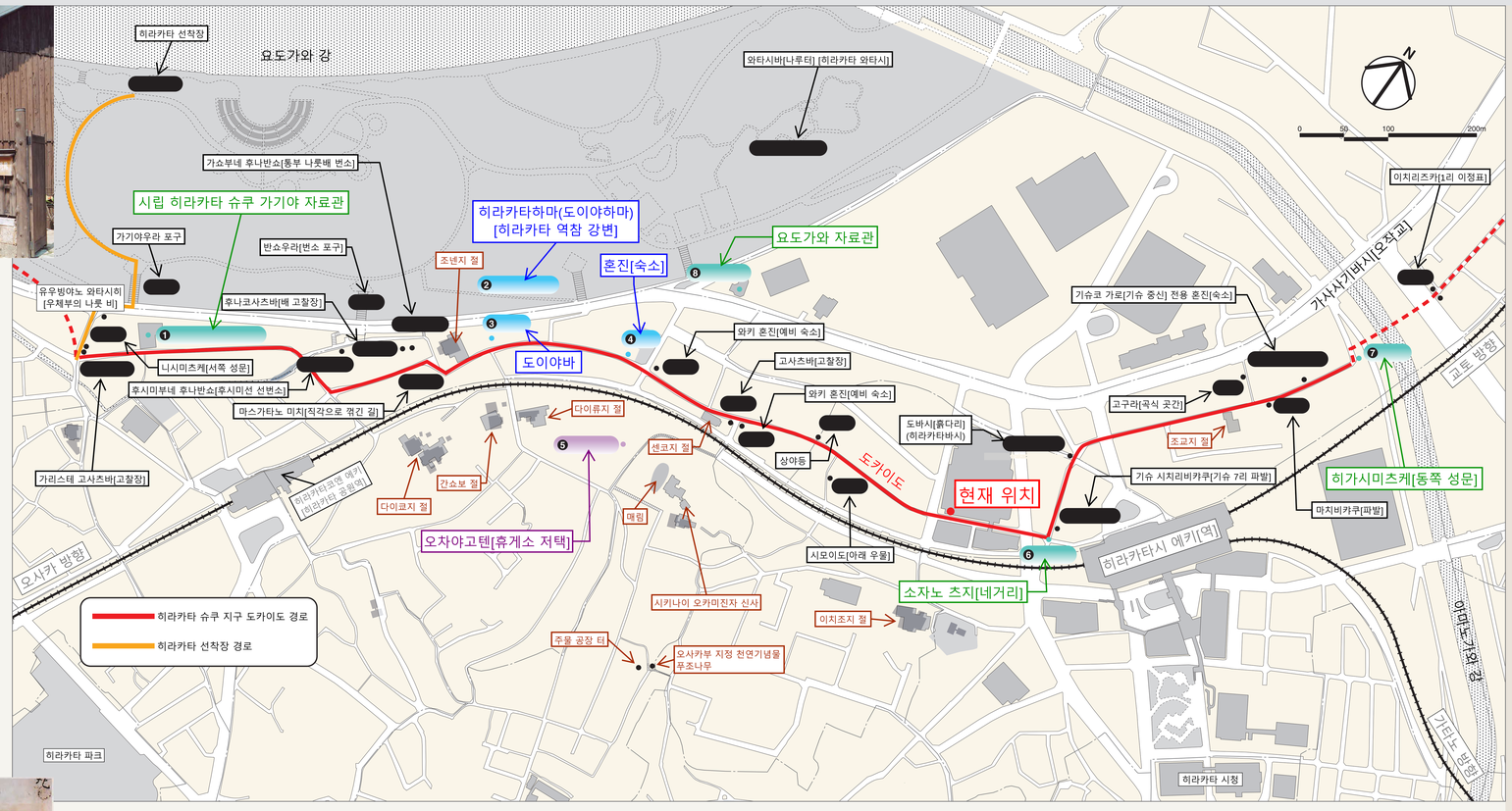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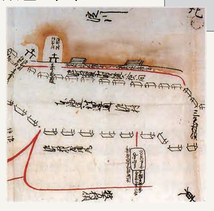
1,790×1,420／看板

도카이도(교카이도) 히라카타 슈쿠 안내도



시립 히라카타 슈쿠 가기야 자료관 ❶

'가기야'는 약 400년 전에 창업되었다고 전해지는 히라카타 슈쿠[역참]의 대표적인 선박 운송업소였습니다.
건축연대가 19세기 초로 알려진 주옥은 당시 히라카타 슈쿠의 모습을 간직한 귀중한 건축물로서 1997년 히라카타시의 지정유형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한 주옥과 별채 전시 코너에서는 히라카타 슈쿠의 역사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쇼우라 에즈'
[번소 포구 그림]

요도가와슈운 히라카타하마(도이야하마) ❷

요도가와 강은 교토·후시미와 오사카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옛날에는 산짓코쿠부네[삼십 섬 배] 등 대여 객선을 합쳐 1,000 척 이상이 오가고 이 배들의 감시 시설로 후나반쇼[선번소]를 두었습니다.
또한 삼십 섬 배의 손님을 상대로 음식물을 파는 배(니우리차부네)는 그 표어에서 흔히 '구라완카[먹고 마실래]부네'라고 불렸습니다.

도이야바 ❸

도이야바는 말과 마부를 갈거나 공무 여행자의 숙소를 잡는 등, 역참의 모든 사무를 취급했고 민간 수송에도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도이야 관리(역참 관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참 도이야바 그림'

혼진 ❹

혼진은 다이묘·막부 관리·공가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휴게와 숙박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일반 여인숙과 달리 대문과 현관·현관 마루·죠단노마 [마루가 높은 방] 등을 갖춘 크고 격식이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만넨지야마 산과 오차야고텐 ❺

만넨지야마 산에 있는 시키나이·오카미진자 신사는 히라카타 팔경의 하나로 꼽히며 경내에 있는 매림이 유명합니다.
이 근처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차야고텐[휴게소 저택]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자노 츠지 ❻

도카이도(교카이도)와 이와후네 가도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정유업을 경영하는 수미노 소자 가문 옆에 있어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가시미즈케 ❼

히라카타 슈쿠의 동쪽 현관에 해당하며 근처에는 칠석 전설의 아마노가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와치 메이쇼 즈에[가와치 명소 그림책]' '덴카와 강'

요도가와 자료관 ❽

요도가와 강의 치수·홍수의 기록과 배편, 서민 문화의 역사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거리 히라카타 슈쿠

도쿠가와 막부는 17세기 초부터 전국적으로 가도 정비·역참 설치를 추진해, 도카이도의 연장으로서 후시미·요도·히라카타·모리구치의 4역참을 마련했습니다.
히라카타 슈쿠[역참]는 히가시미즈케에서 니시미즈케까지 797칸(1.5㎞), 도이야바[역참]·혼진[숙소] 외에도 여인숙이나 상가 등 많은 저자가 처마를 나란히 하여 역참 마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기이 도쿠가와 가문은 번주 요시무네가 8대 쇼군에 오른 후, 6대 번주 무네나오의 간포 원년(1741년) 산킨코타이[참근 교대]부터 오사카·교토에 쇼군 가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도카이도를 지나는 일이 많아졌으며 참부·귀국 모두 히라카타 슈쿠에서 늘 숙박하였습니다.
또 히라카타는 요도가와 수운의 중계항으로 쌀과 가와치 무명, 유채 등 물자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자이고마치[재향 마을]로서도 번영하고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수륙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상가

가도 연변에는 상가가 곳곳에 들어서 있고 데코우시[격자]나 무시코마도[격자창], 소데우다츠[방화벽] 등 중후한 풍취가 역참 마을의 모습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